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2024. 3. 16.(토) 배포즉시 배포 2024. 3. 16.(토)

미 행정부, 의회 등에 대미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12.(화)~15.(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 주요 싱크탱크, 로펌, 기업 등을 면담하였다.

* (상원) 톰 카퍼(델라웨어, 민주), 존 오소프(조지아, 민주), 토드 영(인디애나, 공화)
(하원)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민주), 아드리안 스미스(네브라스카, 공화), 마이크 켈리(펜실베니아, 공화)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및 주지사·의회 면담을 통해 반도체법 보조금, IRA FEOC 세부규정, 비자 발급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투자가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미 측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그간 FTA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역내 공급 부족을 겪어 왔던 섬유 원료(구리암모늄 레이온사) 원산지 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외교협회(CFR), 헤리티지 재단 등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고위급 인사 등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미국 통상정책 동향 및 전망을 점검하고, 정책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한미 간 경제·안보 동맹의 중요성 등 우호적인 기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요 기업인 써모피셔, 쉐브론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바이오,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진행하였다.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합당하게 대우받고 우리의 관심과 이해가 미국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인사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미국 내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권태성	(044-203-56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